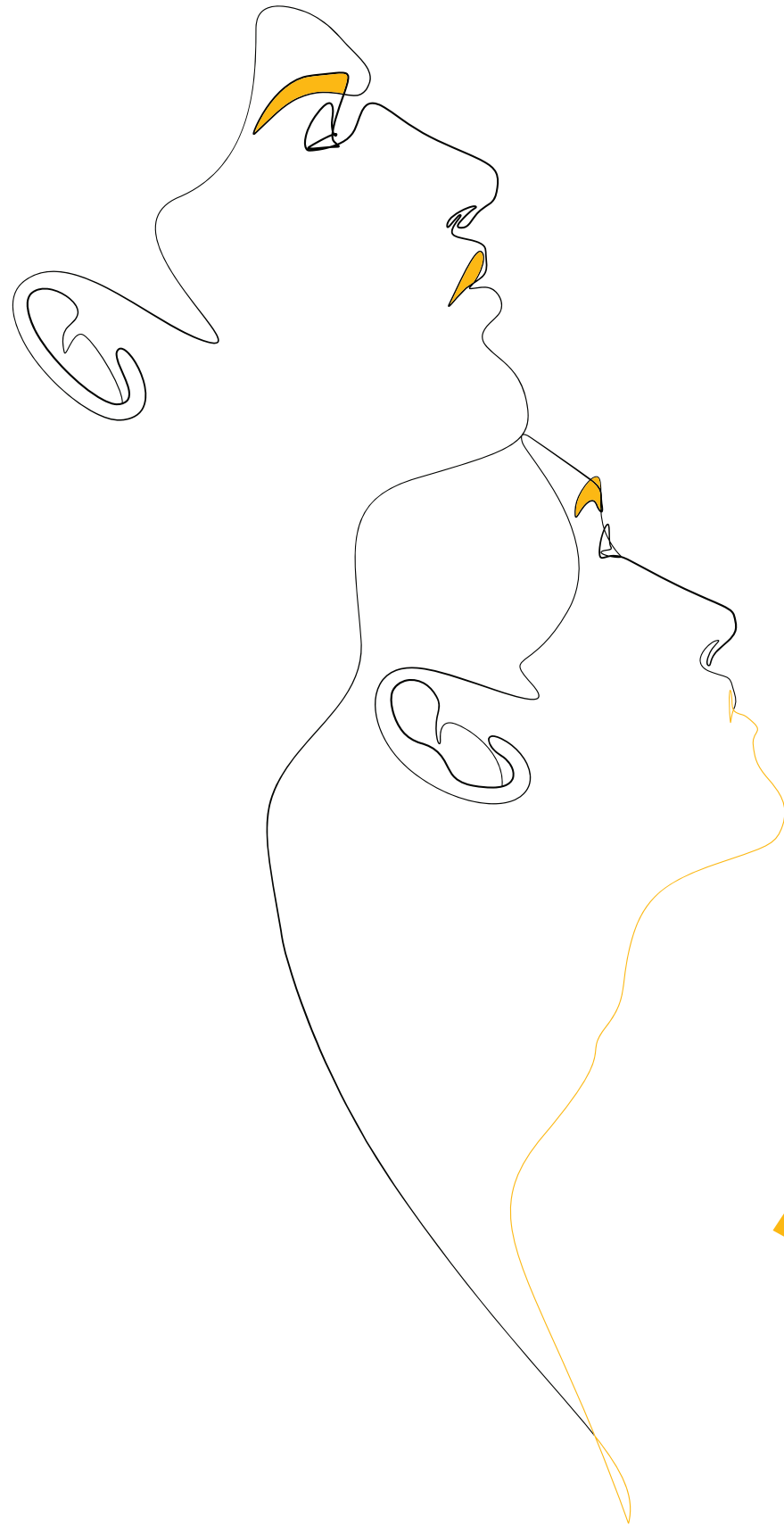


관점:

다양한 관계와 시선이
한 곳을 향할 때의 변화



서울
미래
만남

자유로운 만남
활기찬 미래

Vol. 66

COVER STORY

하나의 선인 원라인(One-line) 기법으로 보는 이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실제 하지 않는(Non-existent) 세상을 그려내는 차한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시선, 자극, 통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 갑니다.
가끔씩은 그 관점을 조금 달리하고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채워갈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변의 관계와 시선이 한 곳을 향할 때 달라지게 될 변화를 이번 표지로 전합니다.

- 차한별
〈Non-existent 20190303〉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온라인에서도 서울노인복지센터 친구가 되어주세요!

facebook www.facebook.com/seoulnoin
YouTube www.youtube.com/channel/UCjN-vXNFhKoB5kGUa17_CSg
kakao http://pf.kakao.com/_ZrQxhT



어디서

- 02 마음을 이어가는 글_ 생각의 전환, 바라봄을 달리할 때
- 04 더 이상한 복지관_ 스마트 복지관

무엇이 되어

- 08 共感_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간 속 공감
- 10 특별기획 : 공간탐구생활_ TOP작은공연장
- 12 현장돌보기_ 2020 서울노인영화제
- 14 교양 오디세이_ 온라인 교육
- 16 스포트라이트_ 동아리

다시

- 20 시선의 확장_ 음성으로 듣는 전시해설 '오디오 도슨트'
- 22 이끄는 삶_ 2020 온라인 가을축제 '안녕, 국화씨'
- 24 건강놀이터_ ㅋㅋㅋ랄랄라닐리리 일상회복 프로젝트: 함께, 포레스트
- 26 꽃보다 할배_ 꿈의 은퇴지 쿠엥카
- 28 내:일의 디딤돌_ 신^新직업 탐구생활

만나는가

- 32 일상 속 관계_ 나눔축제 사내공모 프로그램
- 34 사람과 사람의 인연_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인생교환
- 36 센터의 숨은 주역_ 자원봉사·후원 소식
- 38 씨네talk_ 영화 '정리'
- 39 TOPGOAL NEWS_ 서울노인복지센터 지난 소식





생각의 전환, 바라봄을 달리할 때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希有) 합장

마스크가 익숙해진 만큼,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이 깊어지는 나날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배려하는 지금의 일상은 ‘공존’이라는 개념이 멀리 있지 않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녹록지 않은 시기를 견고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라보는 것을 조금만 달리하다 보면, 힘듦 그 이후의 삶을 그려내는 씨앗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관점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전적으로 풀이된 관점은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관점에 대한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관점 역시 노력과 성찰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말하다 보니 열반경(涅槃經)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대신을 시켜 코끼리를 한 마리 몰고 오도록 합니다. 장님 여섯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묘사하도록 하니 상아를 만진 장님은 무같이 생긴 동물이라 말합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커다란 절굿공이 같이 생긴 동물이라 하고, 등을 만진 장님은 평상 같다고 우기며, 꼬리를 만진 이는 굵은 밧줄이라고 하며 서로가 틀렸음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의 코끼리인데 제각기 알고 있는 것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왕은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물,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면, 제대로 된 모습까지도 헤아려볼 줄 아는 지혜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이라는 단어가 그 기준을 다시 만들듯 세상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께서 어색하고 불편했던 마스크는 ‘나’와 ‘우리’를 지키는 작은 배려로 익숙해졌고, 집안에 머무르는 답답함은 되찾을 일상에 대한 간절함으로 견뎌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점, 생각의 전환은 크고 먼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작은 생각과 실천이 쌓여 얼어붙고, 매서운 바람 사이에 품어낼 씨앗을 만드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서울 노년 복지 센터



노인과 세상이 주고받을 무수한 신호에 관하여

글 공유복지과 장혜영

‘엄마를 향한 아이의 웅알거림, 8차선 도로의 표지판’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신호들입니다.

신경세포로 구성된 우리의 뇌 역시 시냅스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 있고, 조합하고, 만들어냅니다. 당장 침묵할지, 어떤 주제로 대화할지 판단하는 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무수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호와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의미가 정해져 있는 신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를 관통하는 공통의 핵심은 바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며 다양한 감각으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감각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않은 순간조차도 외부의 정보를 파악하며 타인, 그리고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올해 센터는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화상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온라인문화와 클라우드편당의 접목 등 어르신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2015년 개설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유튜브채널의 경우, ‘탐골 TV’라는 새 이름으로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종사자들이 모여 각 전문 영역에 맞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맡았습니다. 이렇게 선보인 약 300여개의 콘텐츠는 누적 225,842건의 조회수를 보이며 다양한 구독자¹⁾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라인교육 역시 팀즈, 네이버밴드, 카카오톡라이브, 줌 등 화상플랫폼의 기능과 수업의 특성에 맞춰 실시간·녹화형을 운영하며 어르신의 호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 4번을 신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된 이 시대에 세계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어 감사합니다.”
“8주 수강 후, 달라진 내가 궁금합니다.”

1) 2020년 12월 24일 기준, 총 구독자 1,484명

사실 이런 움직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KT-IT 서포터즈와의 스마트폰 기초 교육, VR·AR·코딩 로봇을 활용한 뇌활력 IT반, SK-sunny 봉사단과의 1·3세대 스마트폰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하는 뉴스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도구의 쓰임새와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금의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CONTACT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의 삶과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Beyond Contact

이 마음을 부르기 쉬운 말로 줄여보니 Be@Con[비:콘]이 됩니다. 신호(등), 무선송신소라는 뜻을 가진 이 의미처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과 가까워지려는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알고 싶은 노인,
그 사이에서 주고받을 무수한 신호를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신호의 한 일환으로 2021년부터 3년간 ‘내 손안의 복지관’이 열립니다.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의 일상지원, 자가관리를 위한 도구인 스마트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회원증**, 온라인에서 들은 프로그램 중,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더 깊은 배움과 교류를 잇는 **라라라발굴단**(Like, Live, Life),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문제가 아님을 세대가 함께 알아가는 커뮤니티인 **Know Problem**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이제 노인과 세상이 주고받을 무수한 신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만남의 거리

“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을 즐기는 중입니다 ”



오늘 사진관, 김희천 어르신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듣고,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배우거라, 때는 없으니 말이야’



올 2월 1인 스튜디오 내에서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작하는 모습

청년과 노인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글 BBS 불교방송 박광열 PD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라는 작품 속 어린왕자는 지구로 오게 됩니다. 지구에는 앞서 지나온 여섯 개의 별에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길 들여지지 않았기에 같이 놀 수 없다는 여우는 ‘사이 좋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가 중요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말은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법이니까.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지” 여우는 길들인다는 표현으로 관계 맺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의미하죠. 여우의 말처럼 서로에게 길 들여지는 관계를 맺으려면 완전한 이해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상대의 말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점을 달리한 이해를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는 소통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S 불교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박광열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인연이 있겠지만, 저에게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세월을 더해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곳입니다. 2003년 가을, 당시 신입사원 딱지를 떼어낸 2년 차 라디오PD였던 저는 ‘우리사회에서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신명나는 세상을 그리며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넘치는 열정으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을 만나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에 접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탐골 통신’, ‘라디오 상담센터’, ‘실버취업정보’도 모두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만들었던 코너들이었습니다. 매일 방송이 끝나고 걸려오는 어르신들의 문의 전화에 일상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격려와 관심을 받았고, 이후 〈인생은 아름다워〉로 이름이 바뀐 뒤 여러 담당 PD들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는 다시 제가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2003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활기찬미래연구소’, 다양한 직업 소개와 취업 정보를 전하는 ‘직업탐구생활’ 코너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어른들은 말이 안통해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세대차이 갈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말하죠. 이 차이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기회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내가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이야기만 그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지만 잘 ‘듣기’를 배우는 데는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잘 듣

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해 못하고, 상대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 못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어린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길들여진다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소통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소통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0년 우리는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맺지 않아 서로를 알아갈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세대 안에서만 한정짓지 말고 더 넓게 확장시켜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듣고, 말하며 관점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을 열고 후배 세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소중한 세월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선배 시민들이 계신 곳, 바로 제가 사랑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청년과 노인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먼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청년과 노인은 당연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만남의 거리

- 박광열
- 2002년 BBS 불교방송 입사
 - 현 BBS 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 편성부장
 - 현 〈인생은 아름다워〉, 〈밤의 창가에서〉 연출
 - 한국방송대상, 방송위원회대상, 이달의 PD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 다수 수상



TOP작은공연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년 동안이면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실력과 경험을 가진 공연자들이 그 역량을 뽐내는 공간입니다. 클래식부터 대중가요, 마당놀이, 연극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자 중 우리 어르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큼 흥 많고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 없다는 사실은 매번 이곳에서 증명됩니다. 흘러간 노래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KBS 장수프로그램, 가요무대가 있다면 우리 센터에도 동명의 취미가 프로그램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르신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TOP작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가요무대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르신은 있어도 한 번만 경험한 어르신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간만큼 마이크를 쥔 어르신은 미스트롯의 '송가인', 미스터트롯의 '임영웅'이 되고, 노래를 듣는 모두는 어깨춤을 추며 대동단결합니다. TOP작은공연장은 가장 열정적인 공간이자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때론 이곳은 특별한 날의 공식 행사장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명절이면 우리네 가정집 거실에 오곡백과를 가득 차려놓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맛있는 것을 나누듯, 센터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함께 소소하게나마 다과를 나눕니다. 또 어떤 때는 센터의 주요한 사안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센터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내가 말야, 2001년부터 여길 다녔는데”라는 말로 포문을 열어, 지금의 센터가 있기까지 보고 겪은 이야기들은 어르신들의 의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속 애정어린 표현을 하는 어르신은 볼 때면 그 분들이야말로 우리 센터의 ‘찐’ 회원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지향하는 선배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광장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을 어르신들이 직접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담긴, 그리고 열정이 쏟아지는 공간

글 교육복지과 최선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이야깃거리가 많은 장소이자 언제나, 그 무엇이 되었든 어르신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흥이 나는 공간이 있다면 단연코 3층의 이곳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기에 낯선 이들도 한 마디씩 말을 섞고 나면 어느새 친구가 되는 TOP작은공연장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모여든 TOP작은공연장은 비단 센터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느 공간보다 어르신의 열정이 깊고, 20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 중이지만, 이 공간도 어르신들과 함께 흥과 열정을 쏟아낼 날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TOP작은공연장은 누구에게나 공연자로서의 설레는 무대를 제공하며, 모두에게나 자신의 의견을 내는 기획의 장이 될 것이고, 처음 센터를 찾거나 낯설어하는 이들에게 환대하고 환영해주는 곳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열정이 센터가 갖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노년복지센터

사진은 2019년 가을축제 오감만족 행사 중 촬영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르신과 청년 사이를
영화로 잇는,
사이공간

글 지역복지과 윤빛나

**방구석 1열 내 집에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즐길 수 있었던,
TBS와 함께 한 온라인 서울노인영화제**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극장, CGV피카디리1958, 그리고 T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 서울노인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사람, 사이, 공간을 뜻하는 ‘사이공간’이라는 컨셉처럼 어르신과 청년이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만나는 ‘사이 공간’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공간과 공간을 이으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재단 TBS와 협약을 맺고 TV와 TBS 디지털미디어(유튜브 채널 등)를 통해 서울노인영화제 경쟁부문 작품을 상영하는 ‘TV 영화제’를 진행하여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많은 사람들과 노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며, 영화의 감동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버린 팬데믹 상황에서 2020 서울노인영화제는 TBS와 협약을 맺고 집에서 영화제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잇고, 영화를 통해 서로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주는 한계를 넘어서서, 영화로 하나가 된 2020 서울노인영화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몇 번씩 영화관에서 내 영화를 보여줘도, 지방에 있는 가족들은 올라오기가 힘들니까 보여주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TV에서도 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더 좋아했어요.”
- 정인아 감독

비록 예년보다 많은 관객들과 영화관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과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시선과 경험이 공유되었던 영화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무엇보다 2020 서울노인영화제가 기록한 의미 있는 순간은, 지쳐있던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는 청년감독의 수상소감처럼, 먼저 다가오고 소통하는 청년들에 고마워하는 어르신처럼, 영화 하나만으로 어르신과 청년이 서로를 같은 동료로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며 함께 연대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세대통합과 노인인식개선의 장, 서울노인영화제의 2021년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 2020 서울노인영화제 작품은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2.6220.8545

SISFF



교양 교육

네이버 BAND 어플을 활용해 진행한 어르신아카데미 <문학 기행 - 역사를 걷는 문학>은 실시간 교육을 들으며 궁금한 것은 채팅을 통해 질문하며 상호작용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중 네이버 BAND 어플로 교육을 진행했던 이유는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 끝난 후에도 어르신이 어플을 통해 저장된 라이브 영상으로 복습하고 직접 시를 낭독한 음성메시지를 과제방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교육 속, 배운 것에 대한 생각과 표현,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던 유익한 교육 현상이었습니다.

- 교육복지과 장세진

- 활용어플 : 네이버 BAND
- 장점 : 라이브 교육 후, 저장된 영상으로 복습이 가능하다!

우리는 배움으로 온택트! Ontact!

“언제쯤 센터가 문을 여나요?”,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활동이 잠시 멈췄던 그 날,
우리는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실시간 교육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이버 라이브 밴드, 팀즈 등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현장을 소개합니다.

정보화 교육

화면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낯설음도 잠시, 한 분 두 분 새로운 기능과 방법을 익히며 정보화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님과 대면하여 질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주고받으며 질문하고 또 격려하며 따로 있지만 함께 하는 교육시간이었습니다. “대면 강의도 좋지만 이동시간도 아끼며 집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어서 좋다”는 어르신의 코멘트가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한 달간의 실시간 온라인 정보화교육을 수강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스마트검색 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배우는 정보화교육! 함께 참여해보지 않으실래요?

- 교육복지과 임현지

- 활용어플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 장점 : 참여자 모두의 얼굴을 보며 실시간 배움이 가능하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즐기실 수 있는 미술, 건강, 스포츠, 음악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탐골TV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일방향 전달을 넘어서 어르신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실시간 화상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설치부터 사용방법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교육이 시작된 순간 화면에 나타난 어르신과 마주하며 서로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못하지? 그런데도 잘 못하는 나에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어르신,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잘 따라오셨어요! 수업이 끝나도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셔서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해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시간이 배움과 채움으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 이지혜

취미 교육



만남이 잠시 멈춘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만남의 방식을 배우고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해보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여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카메라 너머의 어르신이 그림기도 하지만, 오늘도 표정과 감정을 나누며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은 화면 너머, 그 곳에도 우리의 동아리가 있어요

글 참여복지과 심규희

청명한 가을을 지나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겨울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동아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여 친구들과
배움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함과 걱정을 담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톡톡 보내봅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 나도 이
렇게 돈독한 관계를 쌓고 싶다고 생각하
셨나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세요?
그럼 지금 바로 서울노인복지센터 동아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어르신께 꼭 맞
는 동아리를 함께 찾아봐요!
문의 02.6220.8554

오후 2:45

60%

<

동아리랑 도담도담

Q

≡

🔊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집에서 1일 1동아리 활동하기!

오후 1:17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서양화 동아리 권혜심 어르신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배운 그림 실력을 발휘하여, 집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오후 1:20

오후 2:45

60%

<

동아리랑 도담도담

Q

≡

🔊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집에서 1일 1동아리 활동하기!

오후 1:32

금빛예술단 동아리 이순옥 어르신

안녕하세요?
금빛예술단 이순옥 인사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합니다. 하루가 상쾌하죠!

오후 1:40

한마음 동아리 김만금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저는 코로나19로 복지관에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43

D/M 동아리 정창선 어르신

집에만 있으면 시간 보내기 지루하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직접 영상을 만들고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센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으니 한 번씩 보러오세요~

오후 1:50

판소리 동아리 윤세정 어르신

판소리 동아리에서 회원분들을 위해 담당자와 함께 영상을 만들었어요. '탐골TV'에서 '열혈노인'을 검색하세요. 요즘은 QR코드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야만 '동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동아리가 있는 곳임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서로를 잊지 않고 소통하며 취미와 재능을 갈고 닦아가고 있는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동아리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 센터와서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게 웃다 하루를 보내는 지금.
행복합니다 ”



오늘 사진관, 장기응 어르신

나때는 이랬다는 말보다
오늘의 소중함에 몰입하는 어르신만의 해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이정희 개인전 <여기, 함께> 전시해설 중

어르신의 음성으로 느끼는 전시 감상법

글 공유복지과 이효정



©네이버 오디오클립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탐골미술관'을
검색하면 어르신의 음성으로 전하는
전시해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도슨트 바로가기 ▶



미술, 전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막연히 어렵고, 먼 이야기 같은 느낌이 여전히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의 경험을 담아, 나긋한 음성으로 작품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탐골미술관의 전시를 더 가깝고 쉽게 즐기도록 실버도슨트 어르신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전시해설,
'오디오 도슨트Audio docent'를 소개합니다.

오디오 도슨트는 전시장에 미처 오지 못하는 관람객분들을 위해, 또 탐골미술관
을 방문하여 전시를 보는 와중에 작품이 더 궁금한 관람객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음성해설 서비스입니다. 실버도슨트는 탐골미술관 현장에서 관람객을 안내하고
작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센터의 어르신 도슨트 그룹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 원고를 작성하고, 동년배 친구 혹은 손
주에게 이야기하듯 설명을 녹음하여 완성합니다. 이 오디오 도슨트는 오롯이 작
품과 음성에 집중하여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미술관 밖에서도 네
이버 오디오클립에 접속하여 청취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미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 뼉 크기 스마트폰 안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오디오 도슨트'는 제작자인 실
버도슨트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더 완성도 있는 해설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
을 가지며 필기는 물론 작가의 말을 놓칠세라, 녹취하는 열정까지 보여주십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좀 여유롭고 쉬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해서 처
음에는 전시와 작품에 대해 배우고 소화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쓰고 말한 해설을 관람객들이 듣는 모습과 해설 원고를 쓸 때에 조금 더 수
월해진 나를 발견하며 뿌듯함을 느껴요"*

- 실버도슨트 박혜남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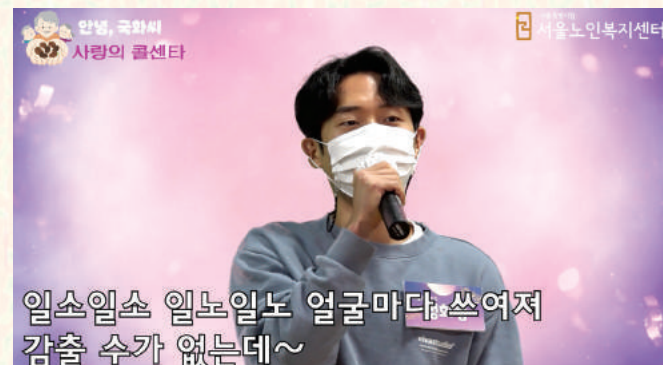
오디오 도슨트를 청취하며 전시를 본
관람객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
께 어르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상
까지 이야기해주시니 듣는 재미가 있
어요."**,

**"그냥 볼 때는 '작품이 가진 색깔이나
형태가 좋구나' 정도의 감상을 가졌
다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직접 녹음하
신 내용을 들은 후에는 작품이 만들어
진 이유까지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어
서 관람이 더 풍부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오디오 도슨트를 이용한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돋보기 없이도 볼 수 있는 커다란 글
자의 작품정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낮게 걸린 작품은 탐골미
술관만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그 안
에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 7명의
실버도슨트가 읽어주는 전시 '오디
오 도슨트'. 앞으로도 귀 기울여 들
어주세요!



2020 온라인 가을축제 '안녕, 국화씨'는 장기간 뵈지 못한 어르신들께 국화 씨앗을 날려 보내 듯 유튜브 (Youtube) 콘텐츠로 "안녕~"하고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개·폐막식, 명절음식 나눔, 공동차려 지내기, 사랑의 콜센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함께 이겨내요 국화씨, 우리 지금 만나, 찾아가는 화상만남, 영양가득 가을간식 만들기, 인문학 특강 등 기존의 국화축제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고 잘 이겨내 보자는 용기와 희망을 담아 온전히 온라인 행사로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현장 속 그 뜨거웠던 시간을 전합니다.



노래 **사랑의 콜센타**
 답답한 일상을 잠시 벗어날 수 있게 아날로그 수화기 너머로 어르신과 이야기하고, 어르신 사연이 담긴 신청곡을 직원이 불렀던 Call 노래방



여행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강릉을 가고 싶으셨던 이종순 어르신의 추억의 장소를 사회복지사를 통해 다시 떠나봤던 랜선 여행



상담 **우리 지금 만나**
 비대면 상황으로 장기간 만나지 못한 서로와 반갑게 인사하고 마음의 격려를 나눴던 화상 만남 프로그램

함께 이겨내요, 국화씨 **공모전**
 위축되어 있던 우리 일상을 슬기롭고 활기차게 잘 극복하고 있는 어르신의 일상을 공모전을 통해 엿볼 수 있던 프로그램



잠시 일상 속 답답함을 잊고자 어르신들의 다양한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도 소통해 보는 온라인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 동안 풀어나지 못하였던 많은 이야기를 3주간 가을축제 속에 담아내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효(孝)실천을 해주신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과 공동차려를 위해 후원해 주신 송례문 라이온스클럽이 함께 의미를 더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일상의 환기가 필요하지만 잠시나마 가을축제를 통해 해소되었길 바라며,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다시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 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
 온라인 가을축제
 보러가기



일상을 함께, 우리가 그려나가는 공동체의 숲

글 공유복지과 허수임

'35', '244', '1,066', '3,103' 그리고 **'4,448'**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숫자를 마주합니다. 책에서, 미디어에서, 휴대폰 속 시계에서 말이죠. 숫자가 지닌 의미는 다 다르지만 앞서 이야기한 숫자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우리는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어울릴 수 없다고 느꼈지..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절대 섞일 것 같지 않은 우리가 오늘은 완벽하게 섞여 맛있는 소스로 완성된 것 같아요”

- 노년세대 나무사랑

“자연을 바라보며 청년과 노년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하나로 이어질 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 청년세대 행복

함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았던 나눔축제 ‘2020 더 나눔 : 함께, 활.명.수’의 다양한 행사 중 세대가 마음을 모아 인왕산으로 떠났던 ‘ㅋㅋㅋ랄랄라널리리 일상회복 프로젝트 등산’편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더욱 많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간 카카오톡 같이가치를 통해 청년세대와 노년세대가 숲으로 떠나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35명의 직접 기부, **244**명의 소식 공유 기부, **1,066**명의 댓글을 통한 기부, **3,103**명의 응원 기부까지 총 **4,448**명의 마음을 모아 세대가 함께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함께, 포레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잠시 멈춰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는, 이 날 ‘숲’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감(五感)을 활용한 다감각적 프로그램으로 세대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나의 일상, 타인의 일상에 대해 진지한 시선을 나누며, 건강한 방식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연을 느끼는 순간은 잘 잊지 않게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오늘 숲에서 함께 한 시간은 앞으로의 시간을 버티어낼 힘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스치고, 도심에서만 저볼 일 없는 흙도 만지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숲을 그려봤습니다. 각기 다른 이름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일궈내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세대가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을 함께 나누며, 타인과 사는 삶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나눔의 미래



꿈의 은퇴지

쿠엥카의 매력에 빠지다

글 서울노인복지센터 백순원 어르신

몇 년 전 우연히 CNN에서 미국인들의 은퇴 후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담아내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중 미국인들의 꿈의 은퇴지로 에콰도르의 도시 쿠엥카(Cuenca)가 소개되었고, 이미 그곳에 정착한 미국인 은퇴자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쿠엥카 전경



페루에 살고 있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마침 바로 근처에 위치한 에콰도르를 다녀올 기회가 생겼고 에콰도르의 도시 중 쿠엥카로 가기 위해 집을 챙겼다.

쿠엥카에 가기 전, 오랜 친구가 30년 동안 살고 있는 꿈바야에 잠시 들리기로 했다. 꿈바야는 에콰도르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대자연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본 창밖은 초록색으로 뒤덮인 산이 펼쳐져 있었고 창틈으로는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내가 살던 페루의 도시 리마의 풀한 포기 없는 갈색의 산과 비교가 되어 더욱 경이롭게 느껴졌다.

친구와의 일정을 끝내고 난 원래의 목적지, 쿠엥카로 떠났다. 안데스 산맥의 줄기를 따라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창가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너르게 펼쳐진 눈 덮인 안데스 산 풍경을 보며 자동적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쿠엥카의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20도 안팎의 쾌청한 날씨였다.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리, 깨끗한 환경이 쿠엥카의 첫 이미지였다. 카페거리를 거닐며 한창 짓고 있는 대형 건물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침으로 병원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다. CNN에서 접한 내용처럼 이 도시의 집값은 3만 불이면 방이 3개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쿠엥카는 남미 최저가에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저렴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또한, 공식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인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도시라고 한다.

쿠엥카에는 잉카의 옛 도시로, 잉카들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그들이 만들어 낸 8,000km의 잉카 트레일을 만나보고 걸어볼 수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감동적이었다. 남미의 대부분이 연결된 이 잉카트레일은 세계 최대의 길이와 오래된 돌길로 잉카인들의 손길과 숨결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기회가 되면 이 길을 꼭 다시 걷고 싶다. 이렇게 특별한 매력을 간직한 쿠엥카에서 장기간 여행을 하는 것도 자유로운 시니어들의 특권이 아닐까 한다. 서울 노인 복지센터

백순원's Tip

열린 마음으로 여행지에서 편견없는 태도로 여행자에게 녹아들 것!

2013년 잉카 트레일 걷던 중 백순원 어르신



2020년 기관지 '꽃보다 할배' 코너에서는 이서진과 같은 사람 없이도 직접 여행을 준비하고 즐기는 어르신들의 여행기를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코너로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신^新직업 탐구생활

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김슬기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전문가

데이터 라벨러

“No shifts, no boss, no limits(교대근무 없음, 상사 없음, 제약 없음).” 한 공유경제 사이트의 구인 문구입니다. 노동은 하되 직장 생활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근로자를 ‘긱 워커(Gig Worker)’라고 부릅니다.¹⁾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을 둔 공유경제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며 등장한 독립형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의 양과 시간대에 대한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니어를 위한 긱 워커, 데이터 라벨러와 도심물류센터 종사자를 소개합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주어진 이미지 안에서 각각의 이름을 달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²⁾에서 주목하는 일자리로 컴퓨터만 다룰 줄 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이미지에서 주제에 맞는 요소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텍스트를 가공하고 상황별 음성을 녹음하며, 다양한 영상 촬영까지 필요로 합니다. 즉, 사람이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 작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업 난이도는 데이터 수준과 가공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데이터 소싱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발을 들이기 어렵다면 기업에서 제공하는 무료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으니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출처: Wikijob

2) 디지털 뉴딜 정책: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을 중점을 둠.

도심 속 물류센터,
상품관리에서
배송준비까지

도심물류센터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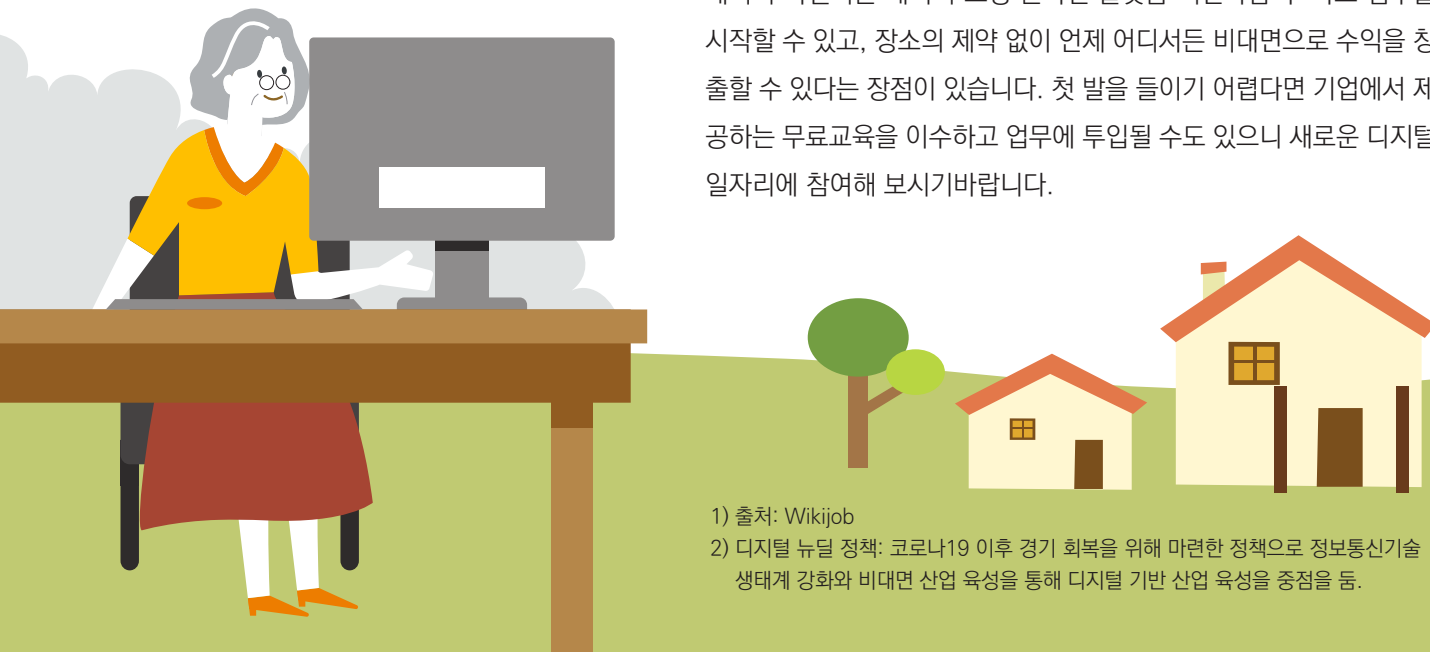
3) Picking·Packing: 주문표에 맞추어 상품을 꺼내고(Picking), 상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위해 포장(Pack-ing) 하는 것.

마이크로 물류센터를 아시나요? 마이크로 물류센터는 소비자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소량의 물품을 빠르게 직배송하는 도심물류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주문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배달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 단위 거점지역에 도심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으며, 내부는 커다란 슈퍼마켓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생필품과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주요 판매 물품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심 물류센터 종사자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상품의 신선도를 점검하고 주문 배송을 위해 매장을 관리합니다. 주문이 시작되는 시간부터는 주문 물품을³⁾ 피킹·패킹하여 배송원에서 전달합니다. 물류센터 종사자는 상품관리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고 이른 시간 출근하는 만큼,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만큼 세대 간의 어울림(이해와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벽근무를 지원하면 낮 시간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역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카카오톡채널
친구 맺고 취업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문의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02.735.1919)



“ 새로운 것을 아는 재미,
알아가고 시도하고 행복을 담은 색,
파랑 ”

오늘 사진관, 강혜령 어르신



어르신이 말하는 배움이란,
세상이 정해놓은 시기에 머물기보다 늙지 않는 호기심으로
삶을 대하는 관점이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관계에 관한 새로운 단상

꽃말로 전하는 안부
나에게,
그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비롯한 나의 관계에 대해 환기해보고 새로운 이웃과의 또 다른 관계를 발견해보는 <꽃말은, 보고싶어요>는 대면 수업과 더불어 실습키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완성한 꽃을 보고 싶은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이 특별한 선물은 센터 노인배달원 어르신의 발걸음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태경 사회복지사, 이호정 사무원

꽃말의 뜻다한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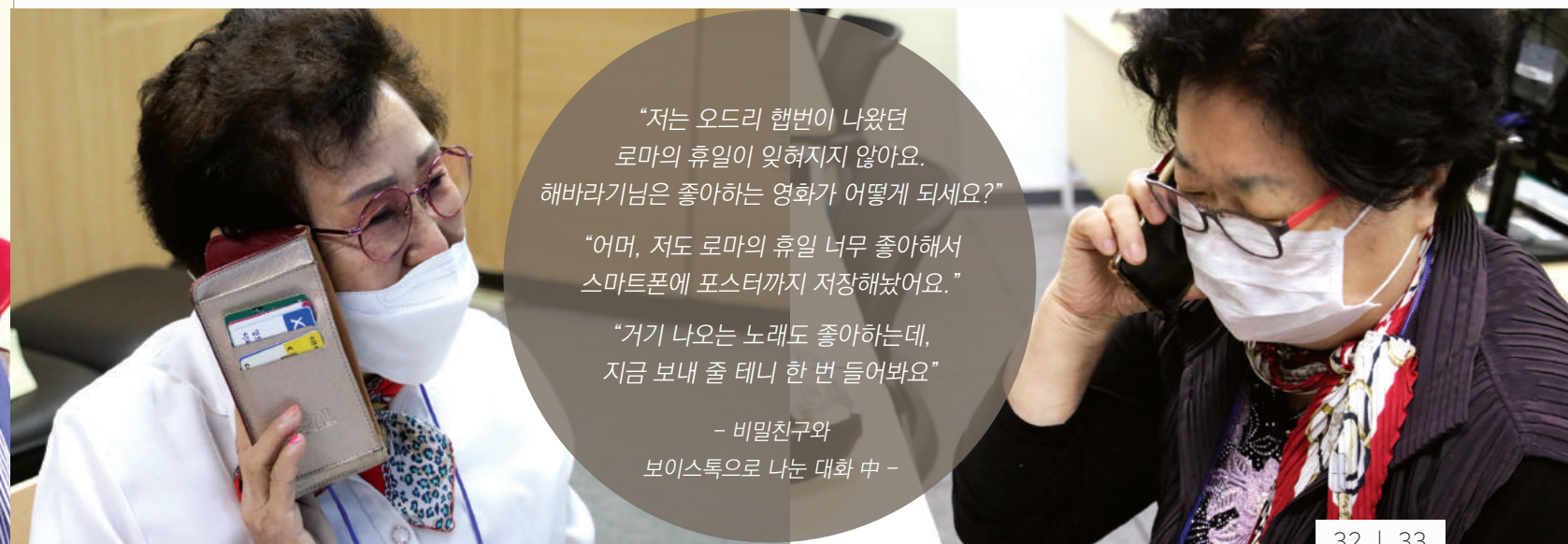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매년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을 주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나눔축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주제로 한 '더 나눔 : 함께, 활·명·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접근 방식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그 어떤 해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공통의 관심 주제에 관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내공모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점을 넘나들 수 있는 형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이들은 부서, 직급, 업무에 얽매이기보다 꽃말과 스마트폰이라는 소재에 집중하여 '관계의 재발견'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도 새로운 관계 맺음의 즐거움을 선사했던 두 사업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너머 마음이 통하는 나만의 비밀친구,
'스마트 Talk Talk'

이수진, 임현지 사회복지사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 속에 담긴 수많은 연락처. 그 중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음악, 사진, 좋은 글과 영상 등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는 걸까요?

<스마트 Talk Talk>에 모인 어르신들은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비밀친구와 스마트폰 너머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부터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고민까지 서로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성스레 찾아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와, 또 '어떤 것'과도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인 스마트폰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스마트 Talk Talk>. 오늘도 어르신들은 누군지 모르는 비밀친구와 스마트폰 너머로 공통점을 알아가고, 서로의 취향을 고민하며 찾은 음악과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마음 속 거리를 좁혀갑니다. 서울 나눔의 미래



“저는 오드리 햅번이 나왔던
로마의 휴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해바라기님은 좋아하는 영화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 저도 로마의 휴일 너무 좋아해서
스마트폰에 포스터까지 저장해놨어요.”

“거기 나오는 노래도 좋아하는데,
지금 보내 줄 테니 한 번 들어봐요”

- 비밀친구와
보이스톡으로 나눈 대화 중 -

청년감독의 카메라에 담긴 어르신의 인생이야기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인생교환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인생교환’은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영상자서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도에는 ‘1970~80년대 중동지역 파견근로 경험에 있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제동원 피해 유족 어르신’의 이야기가 영상자서전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영화를 꿈꾸는 7명의 청년감독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오신 7명의 어르신이 만나, 서로 다른 그렇지만 결국엔 이어지는 7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글 지역복지과 윤빛나



머무르는 기억 흐르는 삶

감독 미닝오브 | 출연 박분자
삶은 흐르지만, 부조리의 기억은 남은 사람의 가슴에 머문다.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박분자 어르신의 영상자서전.



그리고 남겨진 것들

감독 송시윤 | 출연 이영애
어릴 적 일제 강제 동원에 의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남편, 그리고 그와 일생을 함께한 이영애 어르신의 영상자서전.



나의 아버지, 우원현

감독 정효영 | 출연 우정자
7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우정자 어르신의 영상자서전.



프롬 고향

감독 예주는 | 출연 윤금옥
사할린에서 보낸 시절의 아픔과 안산 고향마을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되돌아보는 윤금옥 어르신의 영상자서전.



기억의 집

감독 추병진 | 출연 박영표
어린 시절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오랜 시간 힘써온 박영표 어르신의 영상자서전.



한[韓]

감독 경찬결 | 출연 이윤재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지만, 하나의 풀지 못한 한이 있다는 이윤재 어르신의 영상자서전.



민경의 편지

감독 임세환 | 출연 정민경
스무살 배우 장마음이 대신 읽어가는 스무살 정민경 어르신의 이야기.

영상자서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감독들은 가슴 아픈 과거사라고만 여겼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겪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재구성하며 삶의 무게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았다고 합니다. 쉽게 꺼내지 못해 간직하고만 있던 마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내보인 어르신은, 자신의 삶이 영화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게 되고, 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이 건네는 ‘멋있다, 감사하다, 존경한다’는 말 한 마디에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매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인생교환’,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만남의 거리

노인을 향한 청년들의 이야기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김한주,
안소정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센터로 온 연락 한 통.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해 모은 후원금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김한주, 안소정님을 만났습니다.

글 공유복지과 허수임

Q. 후원자님을 소개해주세요.

채드윅 국제학교 12학년(18세) 김한주, 안소정입니다.

Q.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어르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음식도 만들고, 즐거운 추억입니다. 저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더 어르신 분들의 건강과 복지에 참여하고 싶었고, 온라인으로 마음이 가는 기관을 찾던 중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후원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졸업과정 중 자유롭게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조심스러워 또 다른 방법인 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원금 마련을 위해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고 물품을 모아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열고 판매를 통한 수익 전체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방과 후 활동으로 어르신 직업창출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참여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또 다른 참여방법인 후원으로 함께 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 나눔공방 & 후원 문의 02.6220.869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봉사동아리
‘다소니’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손 소독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르신 스스로 위생·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봉사동아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 참여복지과 손연지

Q. ‘다소니’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르신들과 어떤 활동을 함께 하나요?

‘다소니’는 순 우리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발 위생관리와 더불어 꾸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도록 2006년부터 건강교육, 혈압 및 혈당 체크, 손·발·귀 위생관리, 치매선별검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안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02.6220.8504

Q. 봉사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 당뇨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건강 서비스도 서비스이지만, 특히 젊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것이 참 즐겁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만나 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주셔서 봉사활동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다소니’팀의 앞으로의 봉사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고민에 귀 기울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요즘, 일상생활에서 어르신 스스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그시 바라보며
응원한다는 것.
노인복지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서울 만남의 미로

2019 다소니 활동모습



“나는 직계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남은 인생에서 함께 할 동반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AI,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비혼주의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들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 영화도슨트 윤명옥 어르신



고령의 독거노인 수진 씨는 어느 날 80세 김모 노인의 고독사 뉴스를 듣습니다. 집안 가득 쌓인 짐들 속에서 숨진 지 보름 만에야 발견되었다는 쓸쓸한 소식에, 자신은 죽음을 준비해서 생을 마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직계 가족이 없습니다.’란 유서를 써놓고, 그녀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죽음에 대해 깊게 사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봇 개발자 수진 씨 또한 젊은 날에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였지만, 나이가 들자 자신이 개발한 로봇에 삶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로봇을 개발하여 인류의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포부를 가졌던 수진 씨는, 마지막 순간에도 로봇의 품에서 삶을 마감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서울 만남 미술관

영화정보

이지은 | 2019 | 14분 | 드라마 | 청년

오늘 소개한 이지은 감독의 ‘정리’는 2019 서울노인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노년’을 그려내는 다양한 관점이 담긴 서울노인영화제의 작품 감상을 원하신다면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를 신청하세요. 도슨트 어르신의 특별한 해석과 함께 색다른 만남의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의 : 02.6220.8545

TOPGO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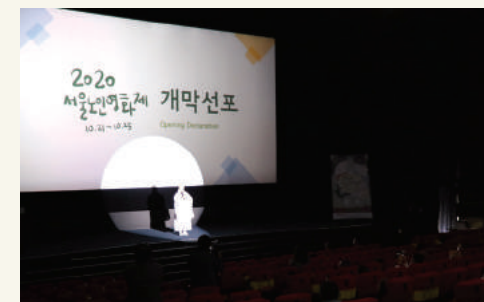
지난 4개월 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20 온라인 가을축제 ‘안녕, 국화씨’ 개막식

9월

- 탐골미술관 ‘도약의 단초6’ 김수연, 김윤아, 박지환, 안다영, 이정희 작가 단체전 오픈(9.9~10.7)
- 2020 종로구청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 희유 관장 수상(9.11)
- 2020 서울노인영화제 시스프렌드 발대식(9.16)
- 2020 온라인 가을축제 ‘안녕, 국화씨’ 개막(9.22)
-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 kt 명절키트 전달(9.24)
- 신나는 예술여행 세종국악관현악단 문화공연(9.24)
- 송례문 라이온스클럽 후원금 전달(9.25)



2020 서울노인영화제 개막식

10월

- 2020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자회견(10.7)
- 2020 서울노인영화제 1부 ‘스+이공간’ 개막(10.21~10.25)
- 신나는 예술여행 음악그룹 나무 문화공연(10.23)
- 우양재단 먹거리키트 후원(10.26)

11월

- 채드워 국제학교 후원금 전달식(11.4)
- 세종문화예술회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공연(11.5)
- 탐골미술관 대관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종로구지부 회원사진전’(11.2~11.7)
-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검진(11.9~11.11)
- 동아리대표자회의(11.19)
- 2021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공모 선정(11.24)
-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 후원 전달식(11.26)
- 직장문화배달 천하제일탈공작소 공연(11.27)

12월

- 한국신용정보원 김장나눔 배부(12.1)
- 탐골미술관 이정희 개인전 ‘작가와 대화’(12.3)
-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수상(12.4)
- 202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의 밤
서울특별시시장상 표창 희유 관장 수상(12.4)
- 2020 서울특별시 우수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선정(12.9)
- 라이온스클럽 후원 동지팔죽 전달(12.22)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안전대상
기업우수상 수상** 글 시설지원팀 염현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제19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우수기업부문 소방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안전대상이란, 국가와 기업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안전관리우수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안전 분야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3개 부문 11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시상하며 안전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종로구 공공기관 최초, 사회복지기관 최초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어르신의 일상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내진보강,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건물 각 구조별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며 특히,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난 대피로를 다수 확보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했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지금, 그 일상이 평범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 봉사자,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관리하고 어르신의 일상이 다양한 경험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응시2, 193.9×130.3cm, 광목에 채색, 2020

이정희 개인전
여기, 함께

축 탑골미술관

※ 11월 23일부터 열린 본 전시는 12월 4일 서울시내 공공문화시설 휴관에 대한 비상대책 발표에 따라 임시휴관중입니다.
추후 재개관 일정은 탑골미술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topgoal.art